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맹미숙¹, 천미정², 정영심^{3*}

¹마음뜰클리닉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상담사, ²한세통합예술상담센터 상담사, ³국군지휘통신사령부 상담관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ody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Friendship

Mi-Sook Maeng¹, Mi-Jeong Chon², Young-Sim Joung^{3*}

¹Counselor, Momgarden Smpo Korea

²Counselor, Counseling Center, Hansei University

³Counselor, Dept. of Business Policy, Defense Communication Command

요약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다문화패널(MPAPS)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조사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146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감과 교우관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울감 감소와 원만한 교우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천적 함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교우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ocial relationships on the effects of physic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2017 Multicultural Panel (MPAPS) surveyed among young people were used. The sample was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1,146 student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friendship was analyzed,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and friendship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 of physic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programs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to reduce depression and promote amicable friendship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Body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Friendship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m Joung(josim1969@naver.com)

Received July 28, 2021

Revised August 16,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증가 되어 다문화사회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허가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의미한다[1].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 증가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2010년 121,935명에서 2018년 기준 237,506명으로 증가 되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2].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은 147,378명(전체 학생의 2.8%)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도 예측할 수 있다[2]. 이처럼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 되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3].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언어문제의 경험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여[4] 심리적인 불안감을 동반하는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조장한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색, 눈동자 등의 외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타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만족도는[5]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의 증가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심리적 안정 증진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의 중요성을[5] 시사한다.

또한 외모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놀림, 따돌림 등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요인으

로 보고되어[6] 또래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도 찾게 된다는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은 가정환경 요인에서 부모의 관심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7] 밝혀짐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또래와 동질감,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하는 성향이 높아 또래와 친밀한 관계 형성 촉진을 위한 개입방안이 요구된다. 반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와 긍정적이지 못한 집단 따돌림에서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8]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으로써 학교생활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물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7]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집단 괴롭힘은 적절하지 못한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축 초래는 물론이며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발달과정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 교우관계를 통해 성숙한 우정을 쌓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시작한다는 점에서[9]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친구로부터의 배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소외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될 수 있다[10].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 친구로부터 무시와 거부 등을 경험하게 하는 집단 따돌림은 신체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5].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어[11]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놀림, 따돌림 등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을 초래한다[6].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진로 관련 탐색보다는 획일화된 사회환경에 노출되어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우울 경험한다. 우울은 다문화의 청소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2,13] 확인되어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우울감 감소가 요구된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도 또래친구와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스트레스를 동반한 우울을 조장하여

삶의 만족을 저해한다[14].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의 적절하지 못한 친구 관계는 우울감 초래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하는 관심과 논의는 당연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 간의 매개 변수 탐색을 통해 우울의 감소와 교우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체만족도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신체만족도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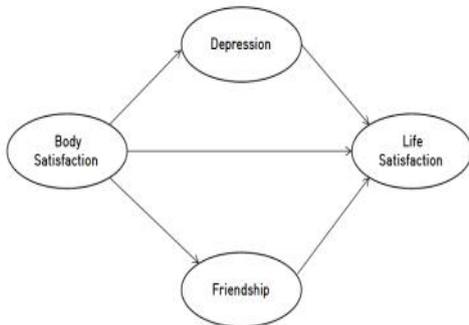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7차(2017)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며 비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기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에 적합한 다문화청소년 1,260명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146명을 선정했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Kim[15]의 측정 문항을 Kim[16]가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했다. 측정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774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 척도는 Song[17]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를 Lim[18]의 연구를 통해 재구성된 문항을 Han[19]의 연구에서 아동들을 위한 어휘가 수정된 척도를 사용했다. 측정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문항은 역문항으로 확인되어 재코딩하여 분석하였고,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값인 Chronbach's α 계수는 .802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1: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Kim[20]의 측정 문항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하고 Lee[21]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10문항을 사용했다. 측정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값인 Chronbach's α 계수는 .915로 나타났다.

2.3.4 매개변수 2: 교우관계

교우관계 척도는 Kim[22]의 측정 문항을 Kim[23]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했다. 측정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값인 Chronbach's α 계수는 .91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특성, 변인 간 관련성, 신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

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고 둘째,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신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 analysis를 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신체만족도의 평균값 2.926(SD=.509), 우울감의 평균값 1.728(SD=.553), 교우관계의 평균값 4.016(SD=.721),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 2.884(SD=.544)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신체만족도와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높으며, 우울감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띠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00	4.00	2.926	.509	-.136	.244
②	1.00	3.80	1.728	.553	.368	-.436
③	1.00	5.00	4.016	.721	-.515	.348
④	1.00	4.00	2.884	.544	.088	.521

①Body satisfaction ②Depression
 ③Friendship ④Life satisfaction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체만족도는 교우관계($r = .374, p < .01$), 삶의 만족도($r = .533, p < .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감($r = -.476,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감은 교우관계($r = -.406, p < .01$), 삶의 만족도($r = -.601, p < .01$)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r = .369, p < .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모든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며($p < .01$),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476**	1		
③	.374**	-.406**	1	
④	.533**	-.601**	.369**	1

주) * $p < .05$, ** $p < .01$

①Body satisfaction ②Depression
 ③Friendship ④Life satisfaction

3.3 연구모형 분석

3.3.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설명하기 위해 관측변수들의 요인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24]. 본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 우울감,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모형적합도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chi^2 = 164.5052$), 자유도($df = .224$), 유의확률($p = .000$), 모형적합지수(SRMR = .064, TLI = .900, CFI = .911, RMSEA = .074)로 전체적인 적합도는 높게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신체만족도3' 문항은 요인계수와 설명력이 낮아 제거되었고,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공분산을 삽입하여 모형을 수정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chi^2 = 758.902$), 자유도($df = .176$), 유의확률($p = .000$), 모형적합지수(SRMR = .036, TLI = .955, CFI = .962, RMSEA = .054)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보다 개선되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χ^2	df	p	SRMR	TLI	CFI	RMSEA
Initial model	1645.052	224	.000	.064	.900	.911	.074
Modified model	758.902	176	.000	.036	.955	.962	.054

3.3.2 구조모형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우울감($\beta = -.428, p < .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비다문화 청소년들과 외모가 달라 신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지면,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교우관계($\beta = .40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모와 신체적으로 만족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beta = -.494, p < .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beta = .074, p < .05$)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관계가 원만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삶의 만족도($\beta = .38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모와 신체적으로 만족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able 4.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D	C.R.
① → ②	-.374	-.428	.030	-12.513**
① → ③	.466	.404	.036	12.946**
② → ④	-.471	-.494	.033	-14.120**
③ → ④	.053	.074	.021	2.584*
① → ④	.319	.384	.025	12.597**

주) * $p < .05$, ** $p < .01$, *** $p < .001$
 ① Body satisfaction ② Depression
 ③ Friendship ④ Life satisfaction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효과분해를 실시하고, 효

과검증은 Bootstrap 기법으로 검증하였다(Table 5 참조). 효과분해 검증결과, 신체만족도는 우울감에 직접효과($\beta = -.374$),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471$),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체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beta = .176$)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감은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교우관계에 직접효과($\beta = .466$),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053$),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체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beta = .025$)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① → ②	-.374**	-.374**	
② → ④	-.471**	-.471**	
① → ② → ④	.520**	.344**	.176**
① → ③	.466**	.466**	
③ → ④	.053*	.053*	
① → ③ → ④	.520**	.495**	.025**

주) * $p < .05$, ** $p < .01$, *** $p < .001$
 ①Body satisfaction ②Depression
 ③Friendship ④Life satisfaction

4.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MPS) 자료를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만족도, 우울감, 교우관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 변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은 겉으로 보여주는 외모에서 갖는 자신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외모에서 갖는 자신감은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높은 신체만족도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25]와 맥을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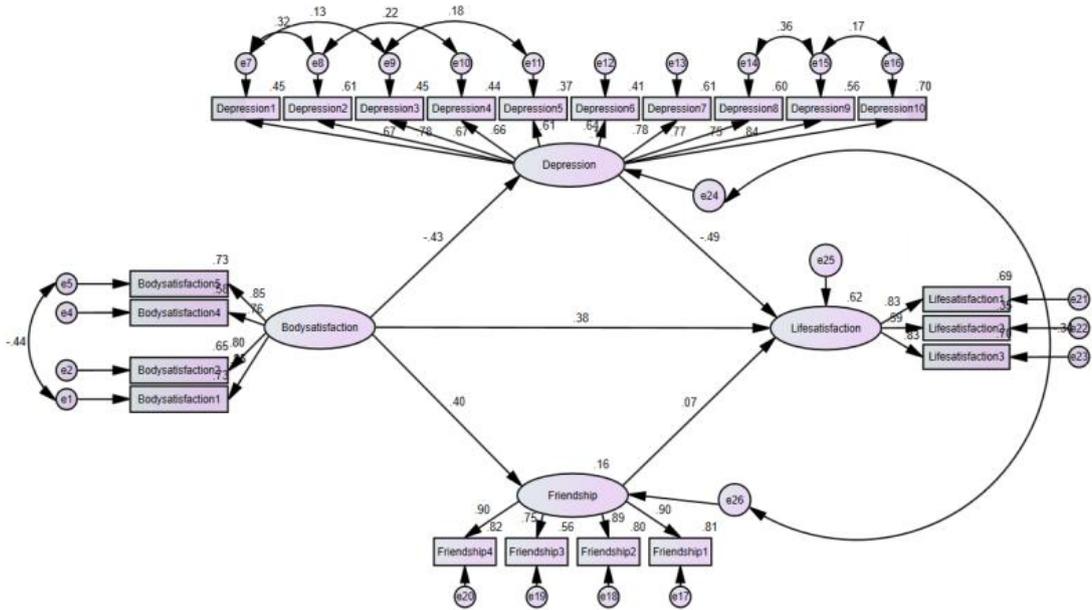


Fig. 2. Structural Model

또한, 신체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활동 참여가 건강한 체력 향상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여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에서도[3] 확인되어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외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또래의 지지는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하는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5,9].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 변인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우울감 감소와[3] 바람직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여 [5,25]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제언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적응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적응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보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부모와 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나-전달법' 프로그램 지원을 제언한다. 나-전달법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다문화 청소년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부모 간의 '나-전달법' 의사소통의 정착은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물론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경감을 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제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증가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3] 우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비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고감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를 제언한다. 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9]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

문화 청소년의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화합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이전 시대보다 다양한 인종이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적·교육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7]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울감 감소와 교우관계에 증진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및 방안 마련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MPS) 자료를 분석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우울감, 교우 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Multicultural family statistics*.
- [3] J. S. Park.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 [4] S. J. Kim & C. H. Hong. (2019).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195-211.
DOI : 10.21509/KJYS.2017.01.24.1.195
- [5] Y. M. Kim. (202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KJCCEP)*, 14(2), 55-74.
- [6] S. J. Park.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 [7] Y. H. Kim & H. K. Kim. (202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9), 155-182.
- [8] I. S. Oh. (2014). Relations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A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4), 219-238.
- [9] R. H. Lee & C. H. Lim.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with Drawal. *Forum For Youth Culture*, 62, 121-144.
DOI : 10.17854/ffyc.2020.04.62.121
- [10] K. I. Choi & S. S. Cho. (2014).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o Improvement the Body Image for Middle School Girls Based on Ecosystem Perspectives, *Forum For Youth Culture*, 39, 209-236. DOI : 10.17854/ffyc.2014.07.39.209
- [11] H. J. Hong & D. H. Ahn. (2021). Exploring Multicultural Families' Background Characteristics, Parental Support, Peer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JCE)*, 10(2), 34, 111-139.
- [12]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6(2), 267-273.
- [13] Y. S. Jo, Y. G. Cho & S. J. Park. (2020).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umanities Society* 21, 11(3), 1991-2006.
DOI : 10.22143/HSS21.11.3.14
- [14] N. J. Kim & Y. S. Lim. (2012). The Verification Of Intervening Effect Of Youth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orean Youth Association*, 19(8), 219-240.

- [15] J. K. Kim, H. J. Lim, S. W. Kim, S. H. Park, S. R. Yoo, J. Y. Choi & G. Y. Lee. (2006).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Research Report 10-R01)*.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6] J. K. Kim, H. J. Paik, H. J. Lim & G. O. Lee. (2010).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7] I. S. Song. (1983). Macroscopic Evalu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1), 93-109.
- [18] J. L. Lim. (1988). *A Study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elf Concepy During the Adolescent Year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University Seoul.
- [19] S. B. Han.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s and Family Systems as Analyzed by the Circumplex Mode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 [20] G.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ummary of Simple Psychiatric Examination*. Seoul : Central Appropriateness Research Institute.
- [21] K. S. Lee, H. J. Paik, J. W. Lee, J. Y. Kim & W. S. Seo. (2010).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2nd, Basic Analysis Report: Status of Youth Participation in Activities*.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2] Y. J. Hwang & K. G. Kim. (2006).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3), 181-203.
- [23] J. N.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 [24] J. F. Woo. (2013).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Co.
- [25] D. S. Kim, B. S. Park, E. B. Lee & G. H. Sohn. (2020). The Influence of Body-cathexis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 Drawa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4, 91-125.
DOI : 10.17997/SWRY.64.1.4.

명 미 숙(Mi-Sook Maeng) [정회원]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상담학석사)
- 2021년 3월~현재: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상담학박사과정)
- 2017년 10월~현재: 마음뜰상담센터 전문상담원

- 2020년 10월~현재: 심리상담센터 헬로스마일 상담원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 E-Mail : mms1508@naver.com

천 미 정(Mi-Jeong Cheon)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상담학석사)
- 2017년 5월~현재: 시흥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사
- 2015년 3월~현재: 한세통합상담센터 가족상담사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장애아동상담
- E-Mail : michoen@hanmail.net

정 영 심(Young-Sim Jou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치료학과(상담학석사)
- 2019년 11월~현재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병영생활상담관 재직
- 2016년 3월~2018년 12월 :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상담사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군상담
- E-Mail : josim1969@naver.com